

「調信」傳의 構成과 意味

李 九 義*

〈차 례〉

- | | |
|-----------|------------|
| 1. 問題 提起 | 4. 否定的 世界觀 |
| 2. 列傳式 構成 | 5. 傳奇의 갈래 |
| 3. 絶望의인 꿈 | 6. 마무리 |

1. 問題 提起

「삼국유사」 권4, 「塔像」조를 보면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이라는 항목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조신」항이다.

사실 이 「조신」전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즉, 어떤 이는 설화¹⁾로 간주하고 또 어떤 이는傳奇²⁾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분은 이 「조신」전은 당나라傳奇인 「枕中記」의 모방작이라고 하기도 한다.

* 영남대학교 강사

1) 車容柱, 「調信 說話의 比較 研究」(韓國文化人類學會, 第2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69.).

林哲鎬, 「調信 說話 研究」(延世語文學, 第7, 8合輯, 延世語文學會, 1976).

2) 林葵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韓國漢文學研究, 第5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81.).
池浚模, 「傳奇 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語文學, 第32輯, 韓國語文學會, 1975, 2.).

朴熙秉, 「羅麗時代 傳奇 小說 研究」(大東文化研究, 第30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會, 1995.).

그러면 이 「조신」전은 어느 갈래에 속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의 구성이 어떠한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 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꿈의 단계, 즉 몽환의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꿈이라는 것은 희망·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해, 이 작품에서의 꿈은 처음에는 희망·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차츰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절망, 고통으로 반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고찰할 필요를 느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사상, 세계관 내지는 인생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우리의 관심사인 갈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겠다. 먼저 이 작품의 구성부터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2. 列傳式 構成

「조신」전은 크게 삼단제로 이루어졌다. 겉으로 보기에 열전의 형식을 본받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내용 면에서 보면 인정 기술과 행적부는 작자 자신이, 그리고 논찬부는 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연하여 열전의 모습을 본받고 있다. 왜냐하면 열전의 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行蹟部가 이 「조신」전에서는 꿈속의 일로 처리되어 사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결말 부분인 논찬부는 「조신」전을 지은 작자의 논평이 아니라 바로 일연 자신의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을 덧붙이고 있어 엄격히 말하면 이 결말부는 이 「조신」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열전의 일반적인 서술 방법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우리가 열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司馬遷이 지은 『史記 列傳』을 떠올린다. 『사기 열전』은 人定記述, 行蹟部·論贊部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 기술에는 立傳人物의 家系 및 출생부연을 밝히고, 행적부에는 입전인물의 생

애 가운데 행적·처세·죽음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찬부에는 ‘태사공이 월’이라는 말로 입전인물을 褒貶하고 있다.³⁾ 「조신」전을 이러한 열전의 형식에 맞추어 그 구성 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정 기술:
 - ① 배경
 - 시간적 배경: 신라 시대
 - 공간적 배경: 명주 날리군(溟州 捺李郡)에 있는 세류사(世遼寺)⁴⁾
 - ② 인물: 세류사의 농막 관리인인 중 調信 + 捺李郡 太守인 金昕공의 딸
- 2) 행적부:
 - ① 세류사에서 농장 관리인으로 조신을 보냄.
 - ② 농장에 이르러 조신은 태수 김흔공의 딸에 반함.
 - ③ 조신은 수 년동안 낙산의 관음 앞에 가서 김흔공의 딸을 아내로 맞기를 기원함.
 - ④ 김흔공의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감. 이에 조신은 관음 앞에 가서 소원을 성취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다가 깜박 잠이 듦.
 - ⑤ 꿈속에서 김흔공의 딸과 만나 결혼함.

3) 李東根은 그의 「朝鮮 後期 實存 人物의 「私傳」研究」(서울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 논문, 1989. 1에서, 우리 나라의 「傳」 형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4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曹壽鶴: 序頭—本文—結末
安秉高: 서두부—한적부—편집부
金光淳: 導入部—展開部—論評部
 - ② 金谷德: 趣意部(自序)—行蹟部(本贊)—評結部(論贊)
金均泰: 導入部—展開部—結末部
金泰俊: 導入部—展開部—論贊部
 - ③ 朱明姬: 家系出生譚—行蹟—沒—妻系關係—評結
趙鍾業: 선계—주인공의 행적(생물)—처자 관계—평결
 - ④ 李東根: 導入部—序頭部—展開部—結末部—論贊部
- 4) 원래 「世遼寺」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世遼寺」의 잘못이다. 이 절은 신라 때에는 興寧寺요, 고려 때에는 興教寺라고도 하던 곳인데, 그 위치는 현재의 江原道 寧越郡 南面 興越里 大華山이다. (申虎澈, 「弓裔의 政治의 性格, 韓國學報, 第29輯, 1982, p. 7)

捺李郡에 대해서는 一然이 註記하여 捺生郡(捺城郡)이거나 牛首州의 捺己郡(捺靈郡)이거나일 것이나, 어느 것이 옳은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三國遺事』卷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 調信) 또 신희철은 世遼寺 本寺가 있던 寧越郡 南面과 인접해 있던 寧越郡 捺生縣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신희철, 위의 논문, p. 38) 그러나 조신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빈곳이 洛山寺였으므로, 낙산사와 가까운 溟州의 捺生郡이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게 생각된다. (李基白, 新羅思想史 研究, 서울: 一潮閣, 1991. 重版, p. 163.) 필자도 이기백의 견해에 동의한다.

- ⑥ 고향으로 가서 40년동안 함께 살면서 자식 다섯을 나옴. 그러나 집이 대단히 가난함.
 - ⑦ 십년동안 사방을 돌아다니며 구걸하여 연명함. 명주 蟹縣 고개를 지나다가 열 다섯난 큰 아이가 굶어 죽음. 길가에 장사 지냄.
 - ⑧ 자식 넷과 부부가 羽曲縣에서 움집을 짓고 기거하나 부부는 병들어 기동이 불가능 함.
 - ⑨ 열살난 딸아이가 동냥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자 부부가 눈물을 흘림. 이때 부인이 갑자기 갈리기를 바램. 이에 두 아이씩 데리고 서로 헤어짐.(부인은 고향으로 남편은 남쪽으로 가기로 함.)
 - ⑩ 이 때 조신은 잠에서 깨어남. 해현으로 가서 큰 아이 묻은 곳들과 보니 돌미륵(석미륵)이 되어 있었음. 그것을 잘 씻어 이웃 절에 모시고 서울에 돌아와 농장 일을 그만두고 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佛道를 수업하더니 그 뒤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 모름.
- 3) 논찬부: 평화전대, 이 글을 읽다가 책을 덮고 꿈꿈이 생각해 보니 하필 조신의 꿈만이 이렇다하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 세상의 낙(樂)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나, 이는 참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詞)를 지어 경계하노라.

달콤한 한시절도 지내보니 허망하다. 근심 속에 나도 모르게 다 늙었네. 허무한 부귀공명 다시 생각하지 마소. 인생은 한바탕 꿈 이제사 깨달았네.

착한 행실을 하고 싶으면 마음을 먼저 닦아라. 홀아비는 미인을 그리워하고 도적은 감춘 것을 꿈꾸네. 가을날 맑은 밤에 무슨 꿈을 꿀거나. 이따금 눈을 감으면 시원한 데 이르도다.

이처럼 「조신」전을 보면 서두 부분, 즉 도입부의 인정 기술은 너무나 간단하다. 도입부에서는 먼저 조신이 활동했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조신이 김혼공의 딸을 보고 한 눈에 반해 낙산대비 앞에 가서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 줄 것을 기도했으나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자 대비를 원망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면, 조신이 신라 시대 어느 임금 때 태어났는지 또 그 부모는 누구이며 그 형제들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또 김혼공의 가계에 대해서도 단지 그의 신분이 현재 태수라

는 것밖에 알 수가 없다.⁵⁾

이처럼 행적부에서 보면,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의 신분이나 직위 또는 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행적부에서는 주인공과 등장 인물의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보면, ①, ②·③·④는 주인공이 잠이 들기 이전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 夢前期에는 주인공인 조신의 신분과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행적부 내에서의 導入部 내지는 發端部에 해당한다. ①은 주인공의 신분, ②는 사건의 발단, ③은 사건의 발단에 대한 성취의 기원, ④는 성취의 기원에 대한 실패로 인해 그 기원의 대상인 관음 앞에서의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행적부 내에서의 도입부를 주인공의 기원이 전체적으로 무산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어 상당히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대에서 만족이 아니라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⑤·⑥·⑦·⑧·⑨는 주인공인 조신이 꿈을 꾸고 있는 상태, 즉 입몽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비록 주인공인 조신의 꿈 또는 이상이 실현되지만 그 이상의 실현이 계속 주인공과 다른 등장 인물 사이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실망으로 이어진다. ⑤는 주인공이 그의 소망인 김흔공의 딸과 꿈에서 결혼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⑥에 오면 그 결혼 관계는 가난과 고난의 연속으로 순조롭지 못하다. 부부가 40년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과 딸 다섯을 낳았다. 그러나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여 ⑦에 오면 식구들이 사방으로 음식을 구걸하여 연명하다가 명주 해현령을 지나다가 열 다섯 살 난 큰아이가 굶어 죽게 된다. 이에 부부는 그곳에다 큰아이를 묻고, ⑧에서와 같이 자식 넷과 부부가 우곡현에 움집을 짓고 살아가지만 부부는 늙고 병들어

5) 이기백은 그의 “신라 정도 신앙의 다른 유형들”(신라 상사 연구, 서울:일조각, 1991, 중판)이라는 글에서 “金昕은 ‘金昕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眞骨를 추정된다. 그가 金陽의 중부형으로서 이찬 관등을 가졌던 인물로 비정되거나, 혹은 현덕왕의 왕자로서 당에 입조했던 인물로 비정되거나 간에, 그들이 모두 진골임이 분명함으로 해서 더욱 그러하다. (p. 164)”고 하면서 김흔의 신분을 진골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또 같은 글에서 조신의 신분을 육두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김흔공의 딸과 서로 인연을 맺지 못한 것에서 들고 있다.

거동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살난 아이가 동냥을 나갔다가 개에게 물리자 부부는 그것을 슬퍼하며, 이를 계기로 아내가 서로 두 아이씩을 데리고 헤어질 것을 제안한다. 이에 조신은 쾌히 승낙한다.

이처럼 행적부 가운데 꿈을 등장시킴으로써 비록 주인공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 소원 성취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져 소원 성취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이 고난의 연속은 바로 불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할애하기로 한다.

⑩은 주인공인 조신이 꿈에서 깨어난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앞의 여러 話素들이 입몽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면, 이 ⑩은 바로 작몽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⑨에서 가족이 서로 헤어지는 순간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다. 즉, 꿈의 세계·환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환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서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죽은 큰아이를 묻은 곳에 가서 그 무덤을 파 보니 돌미룩이 나왔다는 데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꿈과 현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신은 이 돌미룩을 잘 씻어 이웃 절에 모시고 서울에 돌아와 농장 일을 그만두고 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佛道를 수업하게 된다. 그 다음의 그의 행적은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 모른다.”로 처리하여 끝을 맺고 있다.

3)의 논찬부에서 우리는 한가지 의문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논찬부를 누가 지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이 논찬부를 지어 붙인 사람은 이 「조신」전을 지은 작자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논찬부를 지어 붙인 사람은 이 「조신」전을 지은 작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먼저 이 논찬부를 「조신」전을 지은 작가가 붙였다고 볼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보면 바로 열전의 그것을 그대로 따오고 있다. 그러나 이 논찬부를 일연이 붙인 것이라 할 경우에는 형식면에서 보면, 열전의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필자가 모두에서 이 「조신」전의 형식이 열

전의 그것을 따왔다고 한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

이 「조신」전의 논찬부는 “평하건대, 이 글을 읽다가 책을 덮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하필 조신의 꿈이 이렇다 하겠는가?”라고 하는 글로 미루어 보면, 이 논찬부는 『삼국유사』를 지은 一然이 지어 붙였거나 아니면 작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지어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책을 덮고 가만히 생각한다 했으니까.

이 「조신」전의 논찬부를 일연이 붙였다고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삼국유사』 塔像篇에 나오는 30개 항목은 거의가 단일 내용이거나 아니면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이 한 묶음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조에 보면, 앞의 「義湘」·「元曉」·「梵日」의 이야기에 비해 調信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洛山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크게 연결될 요소가 없다. 또 논찬부인 讚道 「조신」전에만 붙어 있어 『삼국유사』 전체의 체제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일연 자신이 직접 지어 붙인 것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항목의 체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논찬부를 일연이 지어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이 「조신」전의 논찬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조신」전의 논찬부는 일연이 붙였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지어 붙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조신」전을 지은 작자가 마치 다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듯이 글을 서술하여 보다 객관성이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조신」전은 형식면에서 보면, 바로 열전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3. 絶望의인 꿈

이 「조신」전은 夢前—入夢—覺夢의 단계를 거친다. 즉, 도입부는 꿈꾸기 이전의 몽전의 단계에 속하고 행적부에서 입몽과 각몽의 단계를 거치

고 있다. 행적부를 보면, 사실 각몽의 단계는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이 입몽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신」전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입몽단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의 구성 항에서 ⑤⑥⑦⑧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몽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⑤에서 보면, 조신이 꿈속에서나마 자신의 숙원이었던 김혼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 조신 자신이 평소 희망하던 일을 꿈속에서나마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꿈이라는 것은 바로 희망, 소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의 성취가 ⑥에 오면 상당히 굴절하고 있다.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았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소망 성취의 기쁨은 고난의 아픔으로 변모하고 있다. 바로 인간 세상의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인간 세상에는 기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보다는 고통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반영은 바로 작자 자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의 반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작자 자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이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비관적이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⑦에 오면 인간 세상의 고통이 더욱 심해져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衣食住 해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끼니를 잇지 못해 서로 구걸을 해서 연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현령을 지나다가 큰 아이는 굶어 죽고 만다. 가족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구성원 가운데 나이가 들어 天年을 다하고 세상을 뜨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말로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굶어 죽은 자식을 묻어 놓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야 어떠하겠는가?

⑧에 오면, 가난과 고통의 세월이 흘러 50년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거웠던 시절은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고 난 몇 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동안 자식을 다섯이나

났었다. 그런데 큰 아이는 굶어 죽고 이제 남은 아이는 네 사람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두 부부는 늙고 병들어서 거동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또 부부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서로 간의 부담이 될 뿐이다. 따라서 ⑨에 오면, 아내가 먼저 헤어질 것을 제안한다. 그것도 지금 생존해 있는 네 아이를 반으로 나눠 두 아이씩 데리고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헤어지기로 한다. 이 헤어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열 살 난 어린아이가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웃에 동냥하러 나갔다가 개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헤어짐의 이유는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삶의 아픔 때문이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좋으면 한없이 행복할 수 있지만, 서로가 부담으로 여길 때 그 부부 사이는 끝이 난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면 쇠라도 자를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또 이러한 두 사람의 마음이 합칠 때에 서로 오고 가는 말은 마치 난초와 같이 향기가 나겠지만,⁶⁾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다. 아내와 남편이 두 아이씩 데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지는 순간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보면 이 「조신」전은 처음에는 희망·소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꿈=소망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 꿈은 희망·소망이 아니라 절망·고통으로 굴절하고 만다. 바로 '南柯一夢', 물거품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조신」전의 입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해 왔다. 일반적으로 서사 문학에서 꿈이 등장하는 것은 신화적인 세계관이 현실적 세계관으로 변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神聖性이 유지되던 신화시대에는 주인공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뜻한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으니 꿈이 특별히 나타날 필요가 없다. 전국 신화나 시조 신화에서 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신화적 질서가 무너지고 현실주의적 세계가 대두하자 인간으로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많아져서 현실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힘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6)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周易』「繫辭」(上)

「조신」전은 당나라의 전기인 「枕中記」⁷⁾와는 달리 주인공을 이상이 파괴된 인물형으로 부각시키면서 교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苦는 樂을 위한 발판’이라는 유교의 긍정적 인생관과는 대별되는, ‘인생이란 영겁의 시간상으로 볼 때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상존 하는 것이라곤 있을 수 없다는 ‘모든 것이 다 헛(幻)되다’라는 불교의 부정적 인생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랑의 “꿈꿈이 옛날 즐거움을 생각하면 근심이 따라 올 것도 당연한 일이다. (細思昔日之歡 適爲憂患所階)”라고 한 말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 「枕中記」는 唐나라의 문인 沈既濟(약 779년 전후 생존)가 지은 것인데 『太平廣記』(卷82)에는 「呂翁」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작품도 역시 「조신전」과 같이 夢遊系の 애정 소설이다. 그러나 작품 가운데 녹아 있는 인생관 내지 세계관은 이 「조신전」과는 차이가 있다. 「침중기」에 나타나는 꿈은 바로 희망적인 것이다. 편의상 「침중기」를 몽전·입몽·각몽의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夢前: ① 개원 7년(719년, 당 현종)신선술을 터득한 도사 呂翁이 여관에서 盧生을 만나 담소함. 노생이 일찍 학문을 했지만, 벼슬하지 못하고 다만 농사에만 골몰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 ② 어옹이 배낭 속에서 베개를 하나 꺼내 주면서, 그대가 내 베개를 베면 영화와 부귀가 뜻대로 된다고 함. (그때 여관 주인은 마침 기장을 찢고 있었다.)
- 2) 入夢: ① 노생이 갑자기 청자 베개의 양쪽 끝에 뚫린 구멍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감.
- ② 몇 달 뒤에 청하최씨의 딸을 아내로 맞음.
- ③ 일년 뒤 진사로 추천되어 과거에 급제한 뒤로 차츰 관직이 높아 감. 정치적 공적뿐만 아니라 출절하여 전공도 세웠음. 관직이 戶部尙書兼御史大夫에 이름.
- ④ 당시 재상들이 그를 시기하여 중상 모략함으로써 端州刺史로 좌천됨. 3년만에 다시 소환, 얼마 안가서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되고, 어진 재상이 됨.
- ⑤ 또 변방에 있는 장교와 결탁하여 모반의 계락을 꾸미고 있다는 동료들의 모함으로 체포됨. 체포될 당시 벼슬한 것을 후회하여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몇 년 뒤 또 연국공에 봉해짐.
- ⑥ 5자 10여손이 있었는데 모두 벼슬함. 노생이 벼슬한지 50년동안 부귀가 지극했으며, 나이가 80이 넘어 죽음.
- 3) 覺夢: 그 때 홀연히 깨어나니 여관주인이 기장밥을 찢고 있는 것이 아직 다 익지도 안는 짧은 시간에 한평생을 경험함. 이에 또 인생이 꿈과 같은 것을 느끼고는 두 번 절하고 가버림.

이와 비슷한 것으로 「櫻桃青衣」(『태평광기』卷81, 夢遊(上))가 있는데 여기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고찰한 것을 약속한다.

4. 否定的 世界觀

傳奇는 일반적으로 작가가 의식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작자의 사상이 깃들어 있을 것인데, 이 「조신」전에는 과연 어떠한 사상이 숨어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흔히 유·불·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상을 고찰한 뒤에 이어서, 이러한 사상이 작자의 인생관·정치적 입장·사회적 견해 등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李基白⁸⁾은 調信이 淨土寺를 세웠다 하므로 淨土往生信仰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私財를 기울여 정토사를 세운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이며, 따라서 정토에 왕생하는데 있어 그 功德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 사재를 기울여 창사하고 또 선업을 닦았다면 조신은 현실주의적인 생활을 한 것라고 추측하고 있다.

車溶柱⁹⁾는 「조신」전은 所埋兒가 石彌勒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大悲·白業 등 觀音佛에 관한 것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신」전은 彌勒佛과 阿彌陀佛이 舍德하던 시기를 지나 아미타불로 넘어온 이후에 나왔다고 하면서 「조신」전의 저작 시기를 신라 후기로 잡고 있다. 또 그는 조신 설화는 興法을 위한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고 하면서, 그 예로 입몽 이전의 조신의 신분이 승려였고, 각몽 이후 심각한 자극으로 더욱 정진하는 일종의 불교 설화라고 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조신 설화는 기저 사상이 혼합됨이 없이 불교 사상으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에는 도교가 국민 사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신라 당시는 유·불·도의 사상이 혼재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서도 불교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불교 사상 가운데서도 彌勒信仰과 彌陀信仰이 그 주류를 이루었고, 唯識·華嚴思想이 전개

8) 李基白, 앞의 책, pp. 160 ~166.

9) 車溶柱, 앞의 논문.

되면서 한국 불교의 철학적·사상적 토대가 굳어 갔던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주로 미륵 신앙이 중심이었으나, 통일 기에 접어들면서 阿彌陀信仰이 성행했고 景德王 이후에는 아미타 신앙과 觀音信仰이 보다 성행하게 되었다. 「조신」전은 이러한 당대의 사상적 조류가 잘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신」전의 소재로서 불교적 요소를 찾는다면 조신 자신이 승려이고, 法堂 大悲前에서 이루어진 꿈이고, 대비전에서 기원한 점, 큰아들 묻은 곳을 覺夢 후에 파 보니 石彌勒이었다는 것 등이다.¹⁰⁾

구조적 내용을 살펴보다도 조신이 꿈을 꾸기 이전에 지닌 迷惑한 욕망이 大悲의 佛力으로 꿈속에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고통의 세계였고 그로 인해 인생무상을 체득하여 修道에 專心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작품은 환몽구조를 통해 불교적 인생무상 관을 형상하고자 했으며 특히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한 空思想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혹에 빠진 조신이 모든 망상을 끊게 해 달라는 수도자적인 기원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달성케 해 달라는 인간적 기원에 집착함으로써 욕망의 긍정으로 인한 향락의 극치에서 이와는 상반되는 다른 부정적 차원으로의 전향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조신은 이 과정에서 관음보살 행을 통해 정각을 위해 정진하게 된 것이다.

관음은 인격적으로 구현되는 보살을 통하여 과거, 현재·미래에 두루 걸쳐 중생의 주제에 종사하는 보살로서, 조신이 비록 승려이면서도 세속인의 욕망을 관음전에 기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관음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신」전에서는 조신의 꿈이 현실적 욕망의 충족에서부터 시작하나 현실적 욕망의 충족이 樂이 아니라 苦로 귀착되며 이는 이 「조신」전의 사상적 배경이 불교라는 것을 강조한 것 외에 꿈속에서의 고생(苦)이 꿈을 꾸기 이전의 迷惑에서 緣起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신은 관음의 화신 격이라 할 수 있는 꿈속의 金氏卿에 의해 감화하여 세속적 욕망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김씨랑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인생의 즐거움(樂)은 이 즐거움 이전에

10) 林哲鎭, 앞의 논문, pp. 270~277 參照.

이미 괴로움의 因이라는 철저한 因果觀에 입각해 있다. 이런 緣由로 운명, 즉 인연에의 順行을 내세워 이별을 제언하는 김씨랑은 관음의 화신으로 관음의 본래 목적인 救濟者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신」은 당대의 지배적 사상 조류인 미륵·미타·관음신앙을 근거로 空思想과 아울러 因緣思想을 緣起論的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작자 자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5. 傳奇의 갈래

이 「조신」전의 갈래는 어디에 속하며 또 왜 그러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또 「조신」전이 중국의 모방작이나, 아니면 우리 독창적인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차례로 그 해답을 얻어 보기로 한다. 이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밝혔듯이 차용주와 임철호는 「조신」전을 설화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준모·임형택 등은 이 「조신」전을 전기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면 이 「조신」전의 갈래는 어디에 속할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 보기로 한다.

「조신」전이 설화나 전기이냐 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신」전은 전기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연이 문헌을 보고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구전 설화를 기록으로 옮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체제는 전기의 그것을 그대로 갖추었다. 전기의 갈래는 일반적으로 愛情·義俠·諷刺·歷史小說로 그 하위 갈래를 설정하고 있다.

애정 소설은 말할 것도 없이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인데, 이는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람과 선녀나 요정 또는 귀신과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기녀가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애정 소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바로 일명 「仙女紅袋」라고 하는 「崔致遠」傳이 이에 속하며, 중국에서는 원진이 지은 「앵앵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 때부터도 ‘의협’이 존중되어 司馬遷이 지은 『史記』에는 「자객 열전」과 「유협열전」이 있다. 중국에서는 의협소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료의 민멸로 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풍자소설인데, 이는 육조의 유풍을 계승하여 초현실적이고 신령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자의 뜻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우리 나라의 작품으로는 이 「조신」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물론 「조신」전은 중국의 심기제가 지은 「침중기」와 같이 겉으로 보면 애정 소설에 든다고 하겠으나, 실체는 애정의 허망함과 인간의 탐욕이 덧없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의 작품으로는 이공좌가 지은 「南柯太守傳」이 있다. 이 「남가태수전」은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꿈속에 개미 나라의 왕위가 되어 30년동안 南柯郡 태수로 있으면서 많은 공적을 쌓고 부귀를 누리면서 산다. 그는 술하에 5남 2녀를 두었다. 뒤에 외적의 침입을 막다가 패전하고, 공주마저 죽은 뒤에 실의 속에 국외로 추방된다. 그러나 깨어 보니 모두 꿈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모두 인생이란 부질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 소설은 역사상의 인물이나 소설을 傳奇化한 작품이다. 중국에서는 陳鴻의 「長恨歌傳」·「東城老父傳」, 柳琔의 「上清傳」, 郭湜의 「高力士外傳」, 羅隱의 「廣陵妖亂志」, 姚汝能的 「安祿山事蹟」등이 이에 속한다. 이 역사 소설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고 비교적 사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차용주는 “「조신」전은 꿈을 소재로 한 구성이 동계 작품의 효시 격이 되는 작품으로서, 그 작자나 형성 시기에 있어 많은 異論이 있으나 대체로 신라 후기에 지어진 개인 창작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¹¹⁾라고 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을 설화로 보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 작품이 형성된 시기가 신라 후기로 보는 점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바로 그 당시의 사회·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두 분의 견해를

11) 車容柱, 앞의 논문.

먼저 소개한 뒤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임형택은 전기소설이 설화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즉, ㉠작가의 창작성 및 문식의 가미, ㉡사회 현실의 보다 풍부한 반영¹²⁾이 그것이다. 또 박희병은 전기소설이 갖는 특징을 ㉠전기소설에서는 인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서술된다. ㉡전기소설에 있어 시간의 본질은 성장과 변화, 형상으로 표상 된다. ㉢설화와 전기소설은 구체성이나 시간개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의 미학적 특질에 있어서도 뚜렷이 구분된다. 전기소설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애정 문제를 다룬 전기소설의 경우, 섬세하고 고독한 인간상이 그 중요한 미적 묘사를 이룬다. ㉣설화와 전기소설은 창작의 목적의식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설화는 기본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기소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창작된다. ㉤전기소설은 문식을 중시하기에 대구나 고사를 곧잘 구사한다. 이런 점에서 전기소설은 다른 계열의 한문 소설과 그 문체상에서 분명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설화의 기록이나 설화에 약간의 윤색을 했을 따름인 패설 류와도 분명히 구별된다¹³⁾고 하고 있다.

이제 다시 이 「조신」전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먼저 임형택의 견해를 이 작품에 대비해 보면, 구성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상당히 많은 문식을 가미하고 있다. 즉, 구성을 개인의 전기 형식이지만 열전의 틀에 맞춘 점이 그렇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보면, 낙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비관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작자 자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작자 한 사람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공통된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기백은 김혼의 신분을 진골로, 그리고 조신의 신분을 육두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신과 김혼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다. 이기백의 말처럼 이 김혼이 진골이고, 조신이 육두품이어서 신분적으로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작자의 문식이 상당히 가미되었다고 해야 할 것

12) 임형택, 앞의 논문, p. 22.

13) 박희병, 앞의 논문, pp. 33~37.

이다.

조신을 위시한 가족 전체가 가난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은, 비단 이 작품의 등장 인물에 국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신라 후기로 접어들면 많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온다. 즉, ① 中代王權의 沒落, ② 奈勿王系의 登場, ③ 貴族 勢力의 分裂, ④ 城主의 自立과 古代 國家의 解體, ⑤ 農民의 叛亂, ⑥ 盜賊의 蜂起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⑤·⑥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이 반란하고 도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문이다. 백성들에게는 의식주가 바로 하늘인 것이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다면, 반란이 일어날 리도 없고 또 도적들이 생길 이유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이와는 입장이 다른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 땅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작품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작품은 설화의 자연 발생적인 요소가 있가보다는 작자의 목적 의식이 내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꿈이 고통과 절망으로 반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상을 반영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면의 사상적인 면에서 보면, 바로 불교의 生老病死의 四苦와 愛別離苦·求不得苦·五蘊(色受相行識)成苦의 人生 八苦 가운데 七苦를 반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怨憎會苦의 요소는 약하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이 작품이 傳奇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면 우리의 소설은 9세기경에 등장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처음이며, 또 국문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이 효시라고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최근 몇몇 학자에 의해서 異論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異論이 거의 정찰해 가는 과정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잠시 언급했다. 필자가 여기서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8세기를 전후해서 傳奇라는 문학의 갈래가 유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유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말을 단호히 할 수 있다.

통일 신라 때에는 국내에서도 이미 다수의 문인들이 배출되었고 여기에 實貢 諸子¹⁴⁾들이 등장하여 문단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빈공제자들은 중국의 文風을 우리 나라에 직수입한 장본인들이다. 고려말의 崔滋는 통일 신라 시대의 빈공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사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본래 당나라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장경초에 김운경이란 사람이 신라의 빈공으로서 처음 두사례의 방에 이름이 오른 적이 있었다. 이 때부터 천우 말까지 빈공에 급제한 사람이 58인이나 된다.¹⁵⁾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이 헌덕왕 13년(821) 이후 김운경에서 당나라가 멸망(907)할 때까지 58명이었다고 한다. 급제한 사람이 58인이니 실제로 당나라에 유학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헌강왕 2년(837)에 당나라 국자감에 유학 중인 신라의 학생 수가 165명, 문성왕 2년(840)에 수학 연한이 10년을 넘어 일시에 귀국 당한 학생 수가 105명이었다고 하니, 이들만 해도 200명이 넘는 숫자이다. 이외에 留學僧들이 다수 있었으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빈공제자들의 출현으로 한문학은 보다 중국 화되어 가고 있었다. 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형성되어 가던 신라의 한문학은 새로운 면모로 확산되

- 14)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옛 기록에 문장은 強首·帝文·守眞·良圖·風訓·骨番이라고 했는데, 帝文 이하는 사적이 없어서 전을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列傳에는 金后稷·祿眞·強首·崔致遠·薛聰이 立傳되어 있고, 薛聰條에는 崔承祐·최언위·金大問·朴寅範·元傑·巨仁·金雲卿·金垂訓 등을 부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후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 신라 시대의 문인들이다. 이 문인들 가운데서도 強首·帝文·守眞·良圖·風訓·骨番·祿眞·薛聰·金大問·元傑·巨仁 등은 국내에서 수학한 문인들이며, 그 밖에는 모두 빈공제자들이다.
- 實貢 諸子란 唐太宗(在位626~649)이 국자감을 증설하고 외국 유학생을 입학시켜 수학하게 한 뒤, 이들에 대한 과거제도로 빈공과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급제한 유학생들을 가리킨다. 이점에 대해서는,
- 申滢植, “衍衡學生考”(『歷史教育』 11, 12合輯, 1969),
- 李基東, “新羅下代實貢及第者の 出現과 羅唐人の 交驛”(『全海宗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同刊行會, 1979),
- 金世潤, “新羅下代渡唐留學生에 對하여”(『韓國史研究』 第37輯, 同研究會, 1982. 6) 등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 15) “進士取人 本盛於唐, 長慶初 有金雲卿者 始以新羅實貢題名杜詩禮榜 由此 以至天祐終 凡登實貢科者 五十有八人” 崔滋, 『拙菴千百』, 卷二, 「送奉使李中父還朝序」.

어 갔던 것이다. 즉, 국내에서 수학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한문학을 형성해 가던 통일 신라는 이들 빈공제자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入唐 유학생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근체시와 변려문 등 당나라 시문을 곧 바로 도입함으로써 한문학 정착의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이런 면에서 보면 傳奇의 출현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6. 마 무 리

「조신」전은 크게 삼단계로 이루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전의 형식을 본받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내용 면에서 보면 인정 기술과 행적부는 작자 자신이, 그리고 논찬부는 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연하여 열전의 모습을 본받고 있다.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조신」전의 논찬부는 일언이 붙였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지어 붙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조신」전을 지은 작자가 마치 다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듯이 글을 서술하여 보다 객관성이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조신」전은 형식면에서 보면, 바로 열전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조신」전은 夢前-入夢-覺夢의 단계를 거친다. 즉, 도입부는 꿈을 꾸기 이전의 몽전의 단계에 속하고 행적부에서 입몽과 각몽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행적부를 보면, 사실 각몽의 단계는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이 입몽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신」전은 당나라의 전기인 「枕中記」나 「맹도청의」 등의 애정소설과 견주어 볼 때 꿈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는 이 「조신」전에의 꿈은 곧 희망이 아니라 절망 내지는 고통으로 굴절하고 만다. 즉,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이상이 파괴된 인물형으로 부각시키면서 교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꿈은 樂을 위한 발판’이라는 유교의 긍정적 인생관과는 대별되는, ‘인생이란 영겁의 시간

상으로 볼 때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상존하는 것이라곤 있을 수 없다는 ‘모든 것이 다 헛(幻)되다’라는 불교의 부정적 인생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金氏卿의 “곰곰이 옛날 즐거움을 생각하면 근심이 따라 올 것도 당연한 일이다.(細思昔日之歡 適爲憂患所階)”라고 한 말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신」전을 지은 작자는 당대의 지배적 사상 조류인 미륵·미타·관음신앙을 근거로 空思想과 아울러 因緣思想을 緣起論의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因果觀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작자 자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이 긍정적·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비관적이기 때문이다.

구성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상당히 많은 문식을 가미하고 있다. 즉, 구성을 개인의 전기 형식이지만 열전의 틀에 맞춘 점이 그렇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보면, 낙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비관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작자 자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작자 한 사람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공통된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의 生老病死의 四苦와 愛別離苦, 求不得苦, 五蘊(色受相行識)成苦의 人生 八苦 가운데 七苦를 반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怨憎會苦의 요소는 약하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조신」전은 바로 작자의 창작 성과 문식을 가미하고 있으며 사회 현실을 보다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이 작품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 인간의 헛된 욕망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조신」전은 說話가 아니라 傳奇이다. 미진하나마 본고를 여기서 끝맺기로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달지 않는다.